



김옥수 간호협회장 이임식 … 사업보고서 발간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최우선으로 일해”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이 그동안 성원해 준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임기를 마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의 이임식이 2월 21일 오후 대의원총회장에서 열렸다.

김옥수 회장은 제35대(2014~2015년) 및 제36대(2016~2017년) 대한간호협회장을 지냈다.

김옥수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무엇보다 우선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많은 간호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고, 국회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간호현장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고 해결하고자 했으며, 간호사의 근로 가치가 건강보험수가에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100년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협회의 저력과 진정성을 토대로 회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동안 함께해주신 전국의 회원 여러분, 중앙회 임원진과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님과 사무처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임사를 마친 김옥수 회장은

제37대 대한간호협회장으로 선출된 신경림 회장에게 ‘회장 메달’을 걸어주었다. 회장 메달에는 역대 대한간호협회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신경림 신임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대의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소중히 모았으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간호의 새 희망과 미래로 도약하는 출발이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의 진실하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건강과 간호사 인권을 최우선으로 간호정책을 세우고 실현해나가겠다”면서 “간호계가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포용하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신임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김옥수 회장에게 ‘행운의 열쇠’를 선물했다. 김옥수 회장에게는 임기 동안의 활동 사진을 담아 제작한 앨범과 감사의 꽃다발이 증정됐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신·구 임원진이 대의원들에게 임임 및 취임인사를 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김옥수 회장의 사업추진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 편찬작업이 마무리됐으며, 곧 인쇄본으로 나올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지난 4년 동안 김옥수 회장이 추진한 주요 사업 결과가 수록돼 있으며, 총 7장으로 구성됐다.

정규숙 기자 ksung@

전의문

우리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것임을 선언하면서, 대한간호협회 제8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에 신규 및 재직 간호사 이직 방지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은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와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간호사 인력 기준의 상향 조정을 건의합니다.

–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건의합니다.

–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의료법 하위법령 및 여타 관계 법령의 신속한 재정비를 건의합니다.

– 선진국 수준의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하여 방문간호사 등 지역사회 간호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을 건의합니다.

2018. 2. 21.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회장 외
제85회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결의문

우리 38만 간호사는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대한간호협회 제8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며,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및 간호조직문화 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간호사의 역할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통한 유류·신규·재직 간호사의 교육과 취업, 경력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하여 방문간호사 등 지역사회 간호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8. 2. 21.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회장 외
제85회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간호법 제정 주력…간호수가 개선활동

간호사 인권센터 운영…회원복지사업 강화

있는 토대로서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편찬 스杰出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협회 조직 운영 체계 혁신 신설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간호정책 혁신 스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간호현장 중심으로의 보수교육 체계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선거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송만숙 위원장과 위원들, 회장 후보자 참

간호협회는 올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내정부 활동에 주력한다. 간호 관련 법률 개정활동, 간호 관련 수가 개선 및 건강보험정책 관련 활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제도 개선 활동에 힘쓰기도 했다. 간호 관련 법·제도 및 수가, 간호사 이직 방지, 간호업무 표준 등에 관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제2기 한국 간호사 건강연구를 계속 진행한다.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도 간호사회 간호정책아카데미 개최를 지원한다. 간호사 정치참여 확대 활동을 펼치고, 국회·정부·보건의료단체 등과의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에 주력한다. 회비 카드납부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회원관리 시스템을 리뉴얼할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새 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KNA연수원 운영 발전방향을 마련한다.

회원복지를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회원복지 ‘널스라이프’를 운영한다. 간호정책 관련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간호사 이미지 향상 활동에 주력한다. 간호사신문을 매주 발간하고, 인터넷·모바일 간호신문을 운영한다.

간호사 보수교육 질 관리에 매진하고, 보수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KNA에듀센터 및 간호사 면허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간호사 국시 대비 문제집을 출판하고, 문제집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모의고사 문제를 개발한다. 간호학 전문도서를 ‘RNbook’을 운영한다.

간호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에 힘쓰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간호사 인권센터를 운영한다.

통일시대 대비 간호활동을 추진한다. 대한간호협회 100년사 발간 준비 작업을 추진하며, 간호역사 사전집을 개최한다. KICN 간호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재외한인간호사회와의 연계활동을 계속한다.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ICN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 및 아시아간호연맹 회의에 참석한다.

이 같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상·신문·출판·KNA연수원운영·교육·널스라이프운영·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총 282억 4100만 원 규모로 확정했다. 중앙회 회비는 동결했다.

대의원총회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22일 오전 10시에 폐회했다.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달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 · 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